

기고

경청(傾聽)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결실을 맺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양적 성장을 목표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실적을 과시하기에 좋은 공공 인프라 확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작게는 몇십억원부터 많게는 몇백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중 약 40%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는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역구인 봉산·수북·대정면 주민뿐만 아니라, 담양군 12개 읍면의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개선을 끊임없이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도 다니기 힘들다”는 주민의 하소연, 수역원이 드는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일의 불편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의 밝은 얼굴에서 의정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번지르르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고향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자 ‘들음 청(聽)’의 구성을 보면 귀(耳)+임금(王)+열개(十)의 눈(目)+하나(-)의 마음(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처럼 귀를 열고, 열 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즉,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상대를 살피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잘 듣는 것을 경청(傾聽)이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잘 듣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흔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최대 덕목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빚는 주민들은 권한있는 자의 책임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생활민원을 충분하게 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민원 하나라도 성심껏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민생 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잘 듣고 충분히 배려하는 것,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때 주민은 행복합니다. 담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관훈

영국의 회의주의 철학자 흄(1711년~1776년)과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1712년~1778년)와의 다름도 흥미롭다. 흄은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고난 본유관념(本有觀念,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든 의식은 인상(印象,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에 기초한 감각적인 경험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험론의 입장에서 철저한 회의론자를 자처하였다.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강성철 문학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흄과 루소(1)

유명한 저서『인성론』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많이 팔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학계의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그 관심이 '경멸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익명으로(이름을 숨기고) 출판한『도덕과 정치 논집』은 독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흄은 에든버러 대학(스코틀랜드)의 윤리학과 정신철학 교수직 응모에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신론자'라고 하는 주장이 반대편에서 제기되었고, 흄 자신의 적극적인 변호에

도 불구하고 결국 교수임용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흄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난달 후작의 가정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연봉은 300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흄은 이 생활에 만족해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난달 후작은 매우 괴팍한 성격의 젊은 귀족이었다. 그의 이상 성격이 발동해서였는지, 흄은 1년 만인 1746년 4월,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려 했으나, 다행히 먼 친척들이 장군인 클레어 경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

기에 그의 주저인『인간오성에 관한 연구』가 완성되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흄은 에든버러에 있는 변호사협회 도서관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도서관 사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저술에 필요한 책들을 맘껏 볼 수 있다는 점. 이곳에서 흄은 『영국사』를 집필하였고, 이 책이 큰 성공을 거두어 판권으로 벌어들인 돈만 3000 파운드에 달했다. 이 책으로 인해 흄은 철학자로서보다는 역사가로서 더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그만큼 이 책은 뛰어난 업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어느덧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된 흄에게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다. 프랑스 법원 영국대사로 임명받은 허트포드 백작이 자신의 개인 비서로 일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 거둬지는 요청에 마침내 흄은 1763년, 프랑스행을 결심한다. 물론 파리에서 그의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를 존중하고 우대해주었다. 그러나 1766년 1월, 영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흄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다. 루소와 동행하게 된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술과 심리 전술로 무장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은 젊은 사람이 알고도 당할 정도로 날로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다.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비밀비해하다. 진화하는 수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경우도 있다. 스텝문자나

보이스 피싱범죄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

택배배달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범죄 조직에 전송되고 특정은행이나 검찰청 이름으로 전화 오게 하는 수법을 쓴다. 이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전화 하면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사기범이 전화를 받아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 대책 없이 속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행해지는 속성상 누구든

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조지과 연계돼 있어 우리 사법기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난숙도 어려워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 문자 대출 권유는 일단 무시하는게 상책이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 등 정부 어느 부처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 금리 갈아타기 같은 권유는 100% 보이스 피싱으로 보면 된다. 만약 속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금 배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국민 개개인도 누구나 보이스 피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김광중 경감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음력 1월 28일)

Grid of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Expressway Authority.